

2019년도 제2학기

최우성

인문과학대학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창작(한글) 부문—

이름: 

학과: 불어불문학과

학번: 1601 

제출일: 2019년 11월 22일

나선형의 여자

나는 거북이인데 사람들은 나보고 토끼가 되라고 한다

서두르는 이카루스가 되기는 싫어서 보물지도

조각을 찾고 싶은 나는 단어를 고른다

시를 적는다 머릿속 두개의 시계가

느리게 빠르게 경주를 한다

시간이

없

다

매일 나를

위해 흰 몸을 태우는

친구처럼 꼬깔을 쓴 내 동생처럼

게으른 도시여자를 기다려 줄 택시는

없겠지 순간을 보관하는 법을 배웠지만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다 달팽이는 집을 철거

한다 철거한다 맨몸으로 기어간다 전부 괜찮을 거야

심문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털을 훑아주고

정오에는 함께 네모난 방을 여행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따뜻한 지옥으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전부 세고 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지

반짝이는 쥐와 털이 없는 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소리치는 이웃에게

큰소리로 대답하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쉽다

안개도 주정뱅이도 오만한 시인도 자본주의도

모두의 이웃이었을 텐데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자와 타

해방이다!

좁다란 겨울구멍에서 빠져나온 다람쥐가 웃는다

나는 때때로 1인칭이면서 3인칭이니까 가끔은 작은 생명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삶은 여러 개의 목소리

시끄러운 침묵이 때때로 내 안을 뒤집어 놓으니까 얼굴은 오만 가지 색으로 칠해야지

스스로의 말을 번역할 수 있을까?

언어의 오류에 뒤엉켜서 오늘도 나는 표류한다

어젯밤 내 팔 위로 올라탔던 이 다람쥐들을 모두 간직하고 싶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에 대하여

사막상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를렌드의 시집, 썩은 마카롱,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분노, 23세기 자유무역시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담은 경제서, 세상에서 제일 긴 장미 가시, 세워지지 않는 텐트, 고전적 조건형성에 대한 실험 보고서, 통신은 안 되지만 한때 신상이었던 스마트폰,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큐멘터리, 율창이 알, 베네치아 장인이 만든 커튼, 염세주의자가 쓴 일기장, 불효자의 머리카락, 아시아 출신 고양이의 수염, 궁중여인의 초상화, 절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는 안경 등을 팔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모래폭풍에 대비하여 좋은 상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유인도

섬으로 가자

하나 되어 해체하고 사라지며 도달하자

한 조각이라도 그곳에 닿는다면 기꺼이

노래하며 노를 젓자

숨겨진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지도를 펼치자

고통은 순간이나 성취는 반지가 되리라

현대인은 누구나 바다를 건넌다

살아 움직이는 길에서 이따금씩 울리는 고동소리

밤처럼 깊은 복도를 지날 때 그들이 부럽겠지

그러나 먼 기억 속 풍성한 향기 내 연료가 되어 움직인다

그러니 섬으로 가자

깃발을 꽂고 외로운 뱃사공들을 위해 등대를 세우자

친구에게

닫힌 문 앞에서 널 기다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

입안에서 낙타가 날뛰었어

쥐를 닮은 고양이를 따라 나무에 올랐던

흰옷에 얹매이기 싫다고 거무스름한 옷을 샀던

드디어 꿈을 이뤘다며 까만 머리를 노랑게 염색했던

네가

귀를 막고 울부짖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유리를 이어붙였어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너를 이해하고 싶었던 나는

우리라는 말이 결국 우리를 우리 안에 가뒀었니

무제

보편

적인

것에

익숙

한건

나쁜

만이

아닌

데도

가끔씩

반향을

하고싶을

때가있다

소시민이라는글자의

소가작을소인것처럼

나도그냥작은대학생인데

작은거인이라는단어처럼

반전을갖춘사람이되고싶다

모험

한 발자국 늦게 찾아온 낭만을 위해 기도하기

자연은 빠르고 위대하다지만 누구나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커다란 바위에 세차게 부서져도 같은 리듬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니

평화는 느릿하지만 시시할 거야

모래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학자만큼 고요할 거야

파도에 귀를 기울이면 사실 물결들의 합창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도 어딘가에는 자취를 남기지 않겠니